

섬에서 피워올린 신개척주의

현대카드 가파도 프로젝트

현대카드의 새로운 도전, 가파도 프로젝트의 시작

모든 일에 'Why?', '왜 그렇지?'라는 질문부터 던지고, 언제나 새로운 답을 찾아내는 현대카드. 그들이 이번에는 섬을 통째로 바꿔 놓았다. 올초 공개된 '가파도 프로젝트'가 그것. 가파도(加波島)는 제주도 서귀포시 모슬포 남쪽 바다에 위치한 작은 섬이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청보리축제가 열리는 4~5월을 중심으로 6만여 명의 관광객이 몰려들면서 임시 시설물이 늘어나고, 심각한 환경훼손 문제를 안고 있었다.

또한 주민 수가 급감하면서 섬의 미래와 존속에 대한 해결책 모색이 필요했다. 그러던 2012년, 현대카드는 제주특별자치도청과 함께 가파도 내 문제를 해결하고 섬이 처한 현실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꿔보고자 '가파도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단순히 몇몇 건축물을 새로 짓는 재개발 형태가 아닌, '경제와 문화 그리고 생태계의 복원'에 초점을 둔 전에 없던 시도. 프로젝트의 운영 주체가 현대카드나 제주특별자치도청이 아닌 '섬 주민'이라는 것도 독특했다. 건물을 정비하고 보기 좋게 만들어 단시간 내 가시적인 성과를 추구했던 기존의

정비·개발 사업과는 시작부터 노선이 달랐다. 대개 이런 사업들은 일회성 투자나 짧은 홍보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지만 현대카드는 무려 6년의 준비 기간을 가졌다. 600여 명의 사람들이 동원됐고, 1,500번의 회의가 진행됐다.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담당자가 서울과 제주를 오고 간 거리를 합하면 지구 열 바퀴에 이른다. 이 모든 것은 가파도와 주민들을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한 기록. 이런 열정을 기반으로 가파도는 본격적인 변화의 출발선에 섰다.

매주 가파도에 내려가 생활하며 주민들과 직접 마주하고, 함께 한 계단 한 계단을 올랐어요. 처음에는 "다른 육지 사람들처럼 당신들도 잠깐 있다가 떠날 것이냐"며 거리를 두던 주민들도 나중에는 저희의 진심을 알아주시더라고요. 프로젝트를 공개한 당일에 주민들과 함께 울고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_ 현대카드 Special Purpose팀 정성엽 차장

Text - 정병민 Photo - 현대카드 제공



가파도 프로젝트는 혼한 마을 정비사업이 아니라, 섬과 가파도 주민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디자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설계에 앞서, 가파도와 주민들의 표정을 읽는 일부터 시작했지요. 가파도 프로젝트는 가파도라는 자연이 준 무대 위에 마을의 지난 역사를 축적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과 자연이 잘 어우러지며 공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했죠.

_ 가파도 프로젝트 건축가 최욱

지키기 위한 변화, 가파도를 가파도답게

개발이나 개척이라는 단어 이면에는 파괴나 붕괴 등 다소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현대카드의 오래되고 낡은 것을 부수고, 새로 짓는 개발이 아닌 모두가 함께 살기 좋은 개발을 실행하고자 했다. 그리고 이 고민 끝에 현대카드가 내놓은 답은 명료했다. '가파도를 가파도답게' 만드는 것. 현대카드는 가파도 특유의 자연 환경과 고유한 매력은 유지하되, 섬에 새로운 콘셉트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현대카드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해

온 건축가 최욱과 함께 단순한 개발이나 정비 사업의 차원을 넘어 가파도 프로젝트만의 새로운 철학과 가치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버려진 건물을 최대한 활용하고, 평평한 가파도의 지형과 풍경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건축물을 완성했다. 이어 주민 활용도가 낮았던 일부 해안도로를 자연 상태로 복구해 섬을 찾는 이들이 가파도 고유의 자연을 경험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말 그대로 '지키기 위한 변화'를 통해 섬의 붕괴를 막고 가파도 본연의 생기를 되찾은 것이다.



가파도하우스 마을 속 오래된 집과 집터를 바탕으로 새로 꾸민 곳으로, 제주도 전통 가옥의 구조와 형태를 따랐다. 가파도의 풍경을 즐기며 휴식을 누릴 수 있다.

가파도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 아름다운 섬의 풍경에 문화와 예술을 더한 공간.
국내외 예술가들이 상주하며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 신경선

가파도 아카이브룸 가파도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기록하고 기억하는 프로젝트 전시 공간.



© 신경선

가파도 AiR에 상주하면서 가파도는 물론 제주도 내 다양한 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주도 민간설화로 남아 있는 전설의 섬, 이어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요. 이렇듯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젝트들이 지속되면 섬 주민의 삶은 물론 환경과 경제 시스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_ 가파도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 입주작가 정소영

현대카드 프로젝트 담당자들은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주민들과 동고동락하며 섬을 바꾸어 나갔습니다. 예전의 활기찬 모습을 되찾은 가파도의 모습을 보면 신기하고, 참 고맙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가파도 프로젝트는 소중한 약속이자 희망입니다.

_ 가파도 주민

자연과 경제, 문화가 어우러진 가파도만의 생태계

현대카드는 일자리가 적고 인구가 줄어드는 가파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연과 경제, 문화가 어우러진 지속가능한 경제 생태계를 구축했다. 청보리축제 시즌에만 사람이 몰리는 섬이 아닌, 1년 내내 방문하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 섬 주민들이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것. 먼저 툇이나 미역, 청보리와 같은 가파도 특산물의 포장 디자인을 새롭게 하고 온라인 판매를 신설했으며, 새로운 추억을 위한 기념품도 디자인했다. 여기에 여객선 터미널, 게스트하우스, 스낵바 등 여행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신설했다. 자연스레 특산물과 기념품도 판매하는 사람, 게스트하우스 스태프, 스낵바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졌다. 농사나

물질 외에 주민들에게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 것. 현대카드는 여기서 더 나아가 가파도의 문화적 가치도 발전시킨다. 이 모든 시스템이 지속가능하며, 선순환되기 위해서는 가파도의 문화적 가치가 함께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 이 생각의 끝에 탄생한 것이 가파도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Artist in Residence), '가파도 AiR'다. 가파도 AiR에는 국내외 예술가들이 거주하며 다양한 문화 활동을 펼친다. 이들은 가파도의 독특한 자연환경과 문화에서 영감을 받고, 그것을 작품에 녹임으로써 섬 전체에 새로운 활력과 문화의 기운을 불어넣고 있다. 가파도 프로젝트는 완성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가파도는 앞으로 더 살기 좋은 섬, 사람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는 섬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M

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푸른 청보리밭은 가파도를 상징하는 풍경이다.

